

총렬탑 건립을 거듭 촉구합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신 동 소

1. 총렬탑은 동문전사자의 총렬을 기리는 표상

서울대학교에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때맞추어 건립되기를 바랐으나 가시적인 성과 없이 이 사업이 전임 총장에서 후임 총장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다만 서울대 당국으로부터 ‘서울대 출신 국가유공자 동문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기념사업을 마련하며 다양한 유공활동을 포괄할 계획’이라는 기사(‘서울대소식’, 2010. 7. 21자, 제527호)만 접했을 뿐입니다. 많은 동문들은 이 승모사업에 만시지탄의 심정을 토하며 특히 명예교수 일동은 총회에서 건의한 사항이었으므로 더욱 궁금증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루속히 건립되길 요망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이 땅에서의 전쟁은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힌 큰 민족사적 비극이었으며 우리 대학 선배동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희생으로 못 다 핀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총렬탑이 건립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학인 서울대학은 나라의 간성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당으로서 총렬탑 건립은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표상이 될 것입니다. 영령들의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의 수호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으며 또 서울대학교가 존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령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으며 이를 잊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잃는 것입니다. 6·25전쟁을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 산 증거가 작년 3월의 천안함 폭침과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6·25전쟁은 전쟁의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휴전선에 북한의 고성능 무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신 보도와 같이 6·25전쟁 때 중공군에 맞서 싸워 전사한 사창리(史倉里·현재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소재)의 국군 유해가 62구 발굴되었고 1,600여 명의 병사들이 아직도 묻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들을 대신하여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희생이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넋을 기리는 총렬탑 건립은 숭고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역사의 건망증(historical amnesia)이 있다”고 미국 린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이 회고록에 술회하였습니다. 그는 또 한국 젊은이 자신들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지 않은

것은 미국 청년들이 1950년의 전쟁을 위해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합니다.

하버드대학 캠퍼스에 메모리얼 교회에 추모공간을 만들어 목숨을 잃은 동문들을 추모하고 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낫소홀에도 전쟁에서 숨진 동문의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 전쟁 당사자적인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도 6·25전쟁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동문들을 추모하는 비석 하나 없다는 것은 영령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며 그들의 넋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안보의식을 드높일 표상인 충렬탑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대의 명예를 지켜 나갑시다. 이런 일이 실현되도록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서울대학교 충렬탑 건립 계획 추진일지

- 1) 2008년 10월 22일: 서울대학교 충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반성환 교수와 정하우 교수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는 바 이 제언에 적극 찬동하고 그 방법으로 총장께 취지를 전달하고 본부 학적과의 6·25 참전 전몰자 명단 입수하며, 당국에 취지를 전달하고, 대학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논의하였음.
- 2) 2008년 10월 23일: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께 ‘서울대학교에 충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함’이라는 메일을 보냄. 그리고 방문예정을 알렸음. 당일 13시 30분 총장님을 본관 현관에서 상면하여 취지를 설명함.
- 3) 2008년 10월 23일: 총장님의 답변으로는 동 건에 대하여 “학내에서 이를 논의하고 노력해 보겠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 4) 2008년 10월 23일: 대학신문 주간 이봉주 교수께 보낸 메일 내용은 동 대학 총장께 보낸 내용과 동일함.
- 5) 2008년 10월 28일: 홍순호 예비역 대장께 이 취지와 전화로 협조요청을 전달하였음.
- 6) 2008년 11월 17일: 대학신문 주간 이봉주 교수의 협조로 대학신문 9쪽 발언대란에 ‘서울대 충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는 기사를 게재함.
- 7) 2008년 11월 20일: 서울대 김신복 부총장께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동의 교수께 오찬을 베풀어 33인의 명예교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부총장께 이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기획처 이근관 기획부실장께서 기획처 주간회의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였음. 동시 (2008년 11월 20일) 기록관장,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로부터 서울대 재학 중 전몰한 선배들의 기록을 추가로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향후 이 취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음.

- 8) 2009년 3월 2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2009년도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동창회 기획관리부 임성용씨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합니다’의 기사와 건립일지 및 서울대학교 한국전쟁 참전 전몰자 명단을 전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동 건립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09년 3월 23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연수 사무총장과 협의하였음.
- 9) 2009년 5월 21일: 경영대학 LG경영관 211호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과 그 동안의 경과를 알리고 총장께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음.
- 10) 2009년 7월 24일: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께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재차 구체적으로 언급한 제언을 전달하였음.
- 11) 2009년 7월 24일: 이근관 서울대학교 기획부실장께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메일로 보냄.
- 12) 2009년 8월 27일: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께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3차 메일을 보냄.
- 13) 2009년 8월 27일: 이근관 서울대학교 기획부처장께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메일을 보냄. 동 메일에 대해 “향후 추진 상황에 대해 연락드린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 14) 2009년 9월 2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동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박진혁 회장에게 본 총렬탑 건립의 의견을 물었으며, 검토 중 총학생회 회장이 임기가 끝나 차기 회장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전달받았음.
- 15) 2009년 11월 11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이수성 회장께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칼럼 집필과 송고한 총렬탑 건립의 성사 협조를 위한 서신을 드렸음.
- 16) 2010년 1월 22일: 이근관 기획부처장께 1월 25일 15시에 총장실에서 명예교수협의회 이수성 회장과의 회동이 있다는 소식을 정하우 총무이사로부터 들었음(회의결과 요지 첨부).
- 17) 2010년 1월 25일: 15시부터 40분간 총렬탑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이장무 총장과의 회동을 총장실에서 가졌음. 참석자는 이수성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이인규 수석부회장, 문창규 부회장, 최종태 부회장, 정하우 총무이사, 신동소 명예교수 등 7명임. 회의결과에 대한 요지로 이수성 회장의 말씀은 이 총장 재임 중 총렬탑이 실현되기를 간곡히 당부하

면서 교정에 장소를 정하고, 원칙을 세우도록 당부하였음. 이 총장의 답변은 본교 전몰자의 추가 발굴조사 자료를 기록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중이며, 미대 교수에게 총렬탑 조형물에 대해 연구를 상의하였다는 말씀과 6·25 전몰자 외에 월남전 참전 전사자 등 범위를 확대하는 견해도 표명하였음.

- 18) 2010년 1월 19일: 2010년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어 리셉션 직전에 김연수 사무총장과 임광수 회장께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 협조문과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께 드립니다’ 건립일지, 서울대학교 재학생 한국전쟁 참전 전몰자 명단을 드렸음. 사무총장과 면담을 추진한다고 하였음.
- 19) 2010년 3월 26일: 조선일보의 사설 ‘미 대학엔 6·25 동상, 우리 청소년 6·25 난 해도 몰라’ 제하의 사설이 본인의 대학신문 기고문(2008년 11월 17일자 9쪽 발원대난)이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을 제언한 칼럼과 연관되어 조선일보사에 전화로 방문 약속한 후, 3월 28일 14시에 방문하여 조선일보 사회부 범조팀 손진석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기고형의 언질을 받고 관련 자료를 건네 주었음.
- 20) 2010년 4월 1일: 조선일보 39쪽(인터넷 조선일보 신동소)에 ‘우리 대학엔 왜 전사한 선배들 기념물 없나’ 기고문이 게재되었으며, 이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기획실 이근관 기획부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바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4월 9일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위원장은 김태유(공과대학 협동과정·기술경영·경제 정책전공)교수라고 하였음.
- 21) 2010년 4월 8일: 농생대 송해균 명예교수께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의 면담을 주선하도록 협조를 의뢰하였던 바 회장께서 일정을 정한다고 하였음.
- 22) 2010년 4월 20일: 조용(趙雄) 목사로부터 서울대 총렬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의, 즉 민족의 대학으로 6·25전쟁 중 전몰한 서울대생의 총렬탑 건립의 실현을 위해 관심을 평소 가져온 바 마침 본인(신동소)이 4월 1일자 조선일보 기고문 “우리대학엔 왜 전사한 선배들 기념물 없나”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 본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동에서 만났음. 이 일의 실현을 위해 그 동안의 경과와 상황을 전달하였음.
- 23) 서울대학교 농생대 총동창회 임원 모임에서 서울대학교 총렬탑 건립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24) 2010년 6월 1일: 조용 목사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동에서 만나 서울대 총렬탑 건립자금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께 협조를 구한 경과와 그 실현 방법을 본인에게 설명하였음. 이 사항을 서울대학교 이근관 기획부처장과 일차 협의를 하였음. 부처장께서 사정을 이해하고 검토한다고 하였음.
- 25) 2010년 6월 8일: 24항과 관련하여 메일로 이근관 부처장으로부터 부영그룹에 관련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1) 당해 건물을 ‘호국관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서울대 역사관으로 하면서 이 역사관 내에 호국학우에 관한 전시를 시행한다는 방안과
 - (2) 현 단계에서 서울대학교 본부가 움직이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서울대 ‘역사관’에 대한 부영그룹 측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기획처에서는 위 (2)항과 관련하여 명예교수회 등에서 부영그룹과 접촉한 다음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한 연후에 본부에서 접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 26) 2010년 5월 3일: 대학신문 종합 4쪽에 ‘서울대 출신 국가유공자 추모사업 논의’ 제하에 비로소 위원회 구성이란 기사가 게재됨.
 - 27) 2010년 6월 8일: 서울대학교 이근관 부처장의 메일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측은 역사관 건립을 제의하였으며, 소요예산 등 기타 사항을 협의하고자 2010년 6월 15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동에서 조용 목사와 회동하였음. 대략적인 경비로 70억 원을 추정하고 부영그룹에 타진하기로 하였음.
 - 28) 2010년 7월 15일: 본인이 총장실을 예방하여 총렬탑 건립과 관련하여 이장무 총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 건립위원회 결성 등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고 총장께서도 이 일에 감사의 말씀이 있었음.
 - 29) 2010. 7. 21 서울대소식 제527호 1쪽에 ‘서울대, 국가 유공자 동문 기념사업 본격화’ 기사에 국가 유공자 기념사업 마련한다고 하였음.
 - 30) 2010년 12월 8일: 총렬탑 건립에 대한 계획을 참고하고자 총장실 방문을 사전에 학생처장과 협의하고 9일에 총장 부속실에 관련 자료를 두었으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 31) 2011년 3월 2일: 부영 이중근 회장이 서울대학교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건립에 100억 원을 기부하였음.